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2015고합282]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상현(기소), 박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임 담당변호사 김태영

【주문】

- 】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 0.91g(비닐피 포함, 증 제1호),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정(증 제2호),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건초 2.1g(비닐피 제외, 증 제3호),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건초 0.75g(비닐피 제외, 증 제4호), 성분 미상의 빨간색 캡슐 1정(증 제14호), 성분 미상의 빨간색 캡슐 1정(증 제17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 8개(증 제33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기구 8개(증 제34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28만 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납을 명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